

## 인천시 초등학교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음식의 기호도 및 섭취율 조사 이윤주\*, 장경자. \*인천광역시 서곶초등학교,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근 학교급식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잔식량을 줄이고 학교급식의 식단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아동 1인의 적정량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인천시 초등학교에서 자주 제공되는 음식을 조사하고 그 음식에 대한 기호도 및 섭취율을 조사하였다. 제공빈도가 높은 식단조사는 인천시 3개구 관할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30명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로 조사하여 밥류와 김치류는 제공률 50% 이상, 나머지 음식들은 조리법 별로 제공률 30% 이상인 것을 자주 제공하는 음식으로 선정하였다. 기호도 조사는 인천시 급식학교 11개교를 무작위로 설정하여 각 학교 4,5학년생 1100명을 대상으로 자주 제공되는 음식 56 가지에 대해 facial hedonic scale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점수로 환산하여 남녀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제공량 및 섭취량은 인천시 급식학교 1개교의 5학년생 43명을 대상으로 1 달간 자주 제공되는 음식 56가지를 식단으로 제공하면서 무작위로 10개의 배식판을 선택하여 저울로 측량한 후 공식에 따라 섭취율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PC상에서 SA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남녀간의 차이는 Student's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고 기호도와 섭취율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efficient를 구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천시 초등학교에서 자주 제공되는 음식은 각종 잡곡밥, 비빔밥, 짜장밥, 카레라이스, 과일샐러드, 김구이, 돈육볶음, 불고기, 요구르트 등을 포함하여 9종류의 조리방법으로 분류한 총 56가지였다. 2. 밥류에서는 보리밥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팔밥과 콩밥을 싫어 하였다. 3. 일품요리인 비빔밥, 짜장밥, 카레라이스에 대한 기호도는 모두 높았다. 4. 국, 찌개류에서는 쇠고기 미역국과 햄(부대)찌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배추된장국과 시금치된장국와 같은 된장을 이용한 국류를 싫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무침류중 과일샐러드를 가장 좋아하였으며, 도라지무침과 숙주나물무침은 가장 싫어하였다. 6. 볶음류, 조림류 및 튀김류는 기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김치류와 간식류의 기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7.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콩밥과 팔밥, 카레라이스, 튀김류 등을 더 좋아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무침류, 김치류 등을 더 좋아하였다. 8. 주식류인 밥류와 일품요리는 제공량의 75% 이상을 섭취하였으며, 기호도가 높은 무침류는 제공량의 80% 이상을 섭취하였으나 기호도가 낮은 도라지 무침의 섭취율은 38.4%로 가장 낮았다. 9. 국·찌개류와 김치류는 각 음식간 섭취량의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의 음식의 평균 섭취율은 5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10. 간식류에서는 사과와 비가식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공량을 전부 섭취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기호도와 섭취율사이에는 유의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P < 0.001$ ), 기호도가 높은 음식의 적절한 공급은 학교급식의 영양적인 향상과 잔식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